

< 지금 우리들에게 던져줬다. >

역사속에. 시대속에 존재했었던 여성들의 고뇌와 변신.
여성 또한 권력을 지키자며 대적해 일어서자는 여성들의 응징임은!
여성 또한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외쳤던 노년들은.
저항속에서 사랑의 희생양으로 고통받아야 했었던 우리 여성들의 눈빛은...
지금 우리들에게 던져줬다.

어제의 여성들의 외침과 응징임들은
지금 우리를 응징이게 한다.

안제민 서경

* .. 던져히 정리가 되지 않음 관계로 - - !!

향기

나는 누구인가?

가느다란

실바람을 타고

전해오는 이 향기, 이 느낌.

여성으로서

나는 여성이었노라

외치는

고요한 외침.

더운 여름,

한줄기의 소나기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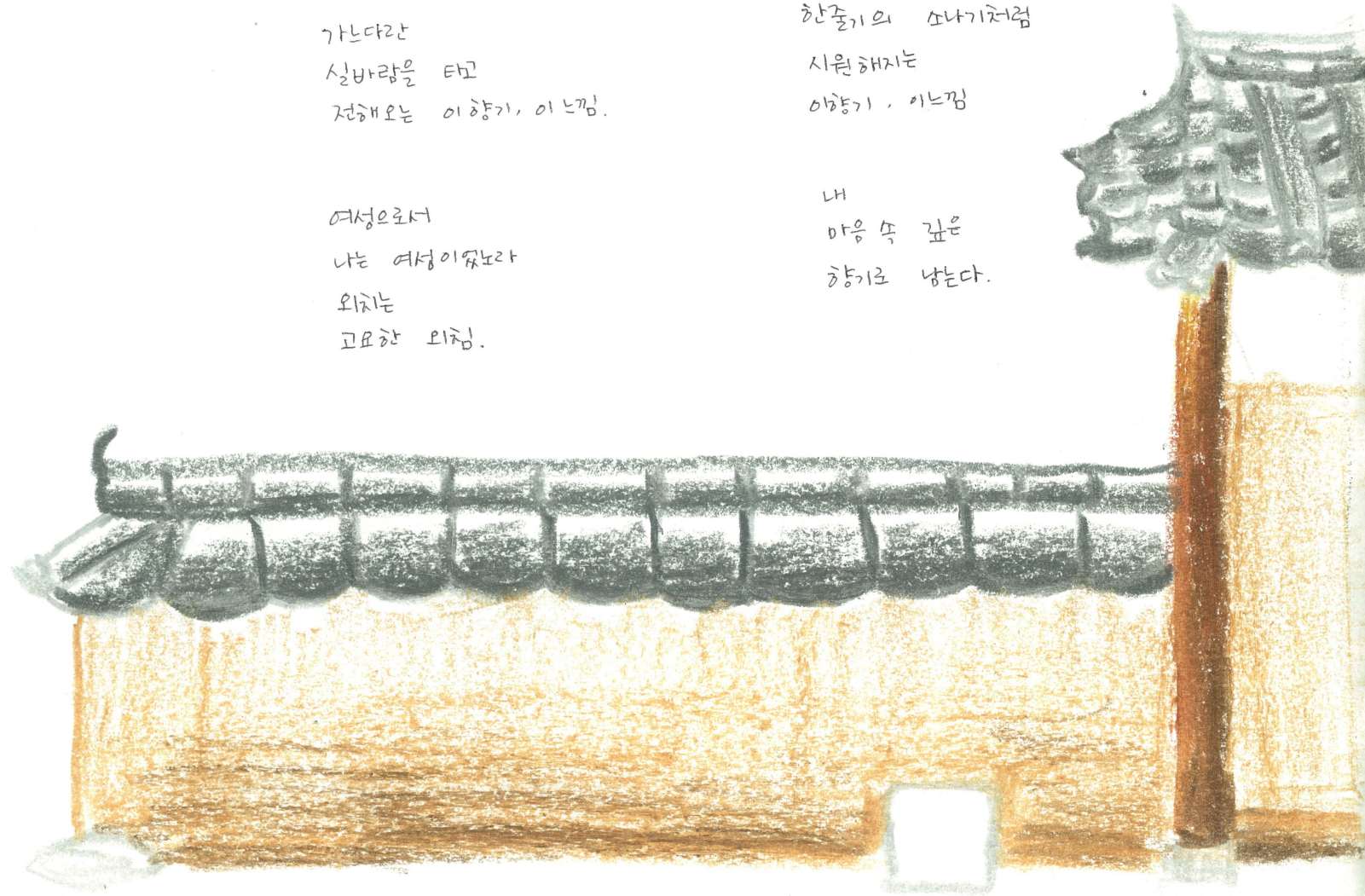
시원해지는

이 향기, 이 느낌

내

마음속 깊은

향기로 남는다.



혜식, 조희를 만나다

김수진

언니,
그 외로운 규방에서 홀로
슬한 눈물로 글귀를 지어내고
그것이 세상에 나와 아름답게 여겨지니
기쁘지 않은가요.

아우야,
내 글귀 홀로 천리만리 뻗어나가도
이몸은 이미 땅에 묻혀
후원 바깥으로 한 발 내딛지도 못하는구나.

아우야,
시대를 거슬러 태어나
어느 여성보다 자유로운 사랑을 즐겼으니
너에게 후한이 있더냐.

언니,
평등이 없는 세상에서
자유도 사랑도 빈껍데기이더이다.
나 다시 산다면
사랑으로 헛된 눈물짓기보다
가여운 자매들을 위해 눈물짓겠소.



바
꽃

아무도 볼지 못하는 꽃
그 모습이 영롱하긴 아름다워 눈이 부실 정도로 해조
우리는 결코 보지 못한다.
아니, 보아도 알아 볼 수 없다
자신의 눈이 아닌,
세상의 편견에 사로잡혀
자꾸만 잊혀져간 그녀들의 빛
이제는 알아야만 한다.
모두가 잠든 그 순간에
빛을 발하는 꽃이 있다는 것을



Y 인제 대학교.

나의 해 영.

- ① 나 생현의 생각을 들리려고 그 안에서 여인의 삶을 재조명해 보면서.
- ② 생각했다. 나도 ~~생현~~ 여인의 삶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그처럼
- ③ 사 허난설헌처럼 ~~유물론적~~ 후대에 남을 만한 인물은 살지 못하겠 조급이랴고 그러라 나 자신에게
- ④ 신하며 몇몇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 허난설헌의 생각을 들리면서 -

돌담 하나하나에.

기왓장 하나하나에.

그녀의 숨겨진 느낌을 읽는다.

후대에 남을 만한 문인으로

영감적인 삶을 산 여인으로

그녀는 우리들의 ~~영감이 되어~~
가슴에 살아 숨 쉰다.

그녀의 손길이 아직까지 느껴지는

이 곳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그녀를 기억하리라.

그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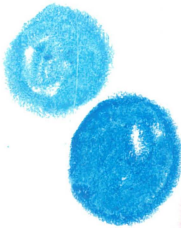
나 자신의 삶을 재조명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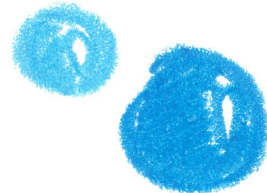
어 ~ 마당에는 대롱나무 예쁘게 피었건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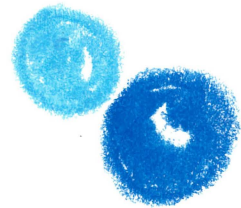
답답하지만 하루나
안재와 후원의 감감한 생활



레이는 이 마음은 표정도감산 누비며
세상을 살피는데



신처럼 기쁜 것은 여명의 생활이야!



나에게 있어 여성이란 의미는 그저 남자와는 다른 어떤 것이었다.

항상 마음으로는 독립적인 여성, 건보적인 여성을 외쳤지만, 아니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나혜석'을 알고 난 후 난 내가 얼마나 여성으로서 나약하게만 살았나 후회하게 되었다.

여성 차별을 사회 곳곳에서 실감할 때에도 나는 그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고 누군가가 바꾸어 주겠지라는 수동적인 행동을 하였다.

'나혜석'을 보며 난 여성으로서 여성을 사랑하고 이해한 모습에 내가 얼마나 여성에 대해 무관심했나를 알 수 있었다. 나 또한 여성이면서 구체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다.

난 이번에 새로운 결심을 하였다.

여성인 내가 여성을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앞장서야겠다는 것.

또 무엇보다 ^다 많이 ~~배우고~~ 배우고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것.

여성과 여성의 역사를

소 발을 거닐며 푸르름을 우러러 보니

그 옛날 남성형의 모습이 된듯하다

시대를 앞서간 그녀의 생각,

그녀의 인생을 어찌 글로 다 할까.

뛰어난 문장 솜씨 드넓은 세계관

비록 슬프다 해도 한 일생을 마쳤지만

그녀의 뒤 고이남아 나의 맘을 깨운다

눈물과 하소연은 지낸 그녀 인생을

아름다움과 행복으로 승화시켜

내 삶을 이끌어 나가리라.

한적한 소나무길을 거닐다
길너머 흐릿한 그녀를 보았다.

이제는 변해버린 눈길이나
딩그러니 남겨진 한옥안뜰이나
그녀의 향이나 모습은 사라지고
흐려지는 열은 그림자만 남겨져 있다.

한이라던가,
쪽그러진 할매의 말따라
소박 데기 보다 더 차가운 삶을
이어가기야 했던 그녀의 삶은
끝도없는 눈길이었으리라.

눈길속에 가리워진
붉은 동백꽃잎은
시간을 넘어, 시간을 넘어
이제와 우리앞에
향기어린 동백꽃으로 남겨졌다.

지금도
실눈에 그녀의 환영을 주고
이른눈에 붉은 동백꽃을 주고
촉촉한 소나무길을 거닐어
길너머 그녀의 꿈결이 떠오른다

동아대 윤혜선

나

나혜석, 그녀는 여성의 사회적 비주류로의 삶을 반대하고
당당하게 여성도 사회의 주체라고
한 인간이라고 얘기한다.

일부군 '위안부' 할머니, 그녀들은 나라 잃은 설움 앞에
남성들의 물리적 힘 앞에 여성을 소유물로 치부해버리는
세상을 과감하고 찢겨지는 아픔에도 잦아지는 고통에도
이름 무대 위에 끝내고자
오늘도 힘겨운 소중의 숨쉬기를 한다.

윤리순, 그녀는 여성으로 민족의 거목에 당당한 여성 의병으로
여성이 지닌 어머니의 따뜻한 강인한 품성으로
태음과 당당히 맞서지 않았던가.

허남성현, 그녀는 조선의 여인이나 사회구조의 아픔,
이웃에 대한 여민과 백성들의 고통을 가슴아파한
이 땅의 어머니였다.

누구하나 부족하지 않고 누구하나 강당하고 뛰어난지 않은
여성들이 아니건만,
그녀들을 이제야 나는 역사의 한모퉁이에서 만나
기쁘고 슬프다.

이제는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품행 만나자.

여성의 역사의 산파자 그녀들과 조감고 나는 이제 주체를 간다.

비상

뒤결이 심어진 소나무의 품음과
안마당에 피어난 ~~무뎀의~~ 화려함을
지냈던 그녀. ~~대롱~~ 꽃의

간혀진 글래의 감옥을 벗어나려
그녀만의 세상 찾아서
오늘도 비스듬하늘 한아귀 ~~새~~ 새되어
우리의 마음 속에 내려앉았네

그녀의 반사휘 튀어
찾아온 강릉.

여기서 나는
새로운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네.

시심행시! ... (시심행서)

윤 화순 그녀는

희 대의 여걸로 태어나서

수 수한 자신의 자아를 찾았다.

소나무 바람은 불어오고
담뽀 붉은 꽃은 나를 반겼는데.
뱃속 아가는 울음을 터뜨리네.

아가. 아가
우지마라.

소나무 숲도. 얇은 토담도
모래 바다 푸른 하늘.
우리 아가 위한 것이니

우지 마라. 아가
호내는 맘도 아프잖아.

有珍.

영남대학교.
황은진

자아

2004년 8월 -

세월의 흔적을 고이감춘
우거진 송림 이곳에
그녀의 숨결이 불어날다.

작지만 강한 그녀의 기쁨
할아름 사운잡았던
이날 누구인가.

사랑채 앞뜰 수줍게 핀 수국인가.
송림 어딘가에서 서럽게 우는
새 한마리모아 했을까.

간성 그녀가 사랑 했터것은
시대를 끌어 안고
안락의 고통을 함께 했었던
그녀의 시와
그녀 자신 초월..

나혜석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유학소

경희대학교
이경애

이 세상의 여성들은
제각기의 삶을 살고 있다.
나무의 뿌리처럼
기초를 드러내지 않으며
푸르름 알지림
내가 한 사람의 사랑으로
주변의 나무들과 이 세상과 살겠 다고
미로운 가지가 부러지고
앞이 젖기는 속에서도
그렇게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로 나가겠다 고
그렇게
이 세상에 송 슈미 살아있는 여성들이여 3



더이상운 안채의 부녀자가 아니다.

더이상운 조선의 여인이 아니다.

더이상운 딸이 아니고, 누이가 아니다.

나는 시인이야.

나는 이땅의 의병이다.

나는 화가이고

나는 이땅의 여성이다.

더이상 딸의 이름으로 누이의 이름으로
더이상운 나의 이름을 내어 줄수 없다.

고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대미소리입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파도의 소리입니다.

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산 바람 소리입니다.

그대의 가슴에서 500년을 억압 받은 소리.

그대의 가슴에서 100년을 짓눌린 울음.

그대의 가슴에서 50년을 숨겨온 울분

이제는 내 질러 버리십시오.

이제는 내 질러 버리십시오.

Dong